골롬반 선교

2023년 여름·가을호 vol.125

"
이방인들과 서로 눈을 맞추고
형제로서 반가워할 때
마침내 새벽이 된다.
그 전은 아직 밤이다.
"

골롬반 선교

2023년 여름•가을호 vol.125

편집실 Tel. 02-927-2705
kormagazine@columban.or.kr

후원회 Tel. 02-929-2977
Fax. 02-929-1366
korseoulfund@columban.or.kr

한국지부 Tel. 02-926-1217
Fax. 02-926-0551
columban@columban.or.kr
www.columban.or.kr
www.facebook.com/columbankorea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마음을 여는 글 03 **이문화 생활, 신앙과 선교에 참여하는 삶** 안재선 제이슨

복음의 기쁨, 참여의 기쁨 06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김윤정 로사리아

08 **낯선 이를 환영할 때,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릴리베스 사바도

말씀 산책 10 **살아있는 책** 민 디오니시오

페루 이야기 12 **오늘도 한 걸음 더** 박상호 라파엘

대만 이야기 14 **경애하는 임귀미 선교사님** 류선종 안드레아

사진 묵상 16 **사진을 통해 하느님 만나기** 알바로 마르티네스

생태적 회심 18 **창조의 계절** 에이미 에체베리아

선교의 은총 20 **사제의 삶 50년, 탁승현 베르나르도 신부** 편집실

함께하는 여정 23 **하느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 김소영 세실리아

신학원 26 **영성의 해를 마치고** 김진욱 사도 요한

후원회 28

골롬반 소식 30

표지 〈마음을 여는 글〉 마지막 문단 속 이야기(☞ 5쪽)를 묵상할 수 있는 이미지
촬영 아브라함 소말리노그, 2023년 1월 1월, 인천 계양산

발행일 2023년 9월 1일 | **발행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 **발행인** 서경희 스테파노 신부 | **취재편집** 김소영 세실리아 | **디자인** 아이디퍼런스
인쇄 서울프로아트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본지에 수록된 글과 사진 사용을 원하실 경우 한국지부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화 생활, 신앙과 선교에 참여하는 삶

안재선 제이슨 신부

해 질 녘, 근처 성북천으로 산책하러 나섭니다. 선교회 한옥 대문을 나오자마자 길을 걷는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가 눈에 들어옵니다. 골목 이발소 앞을 지나가며 보니 이발사가 흑인 손님의 머리를 다듬고 있습니다. 성북천에 도착한 제 앞으로 검은색 긴 옷에 스카프를 쓴 두 여성이 지나갑니다. 천변을 따라 걷는데, 이탈리아어, 영어, 중국어가 가까이 들립니다. 많은 한국인 사이에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 그리고 필리핀에서 온 저까지, 제가 신학생 시절 한국에 처음 왔을 때보다 이 나라가 문화적으로 많이 변화했음을 실감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왔고 한국인도 외국에 많이 갔습니다. 이 같은 인구 이동 결과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 작용을 일컬어 학자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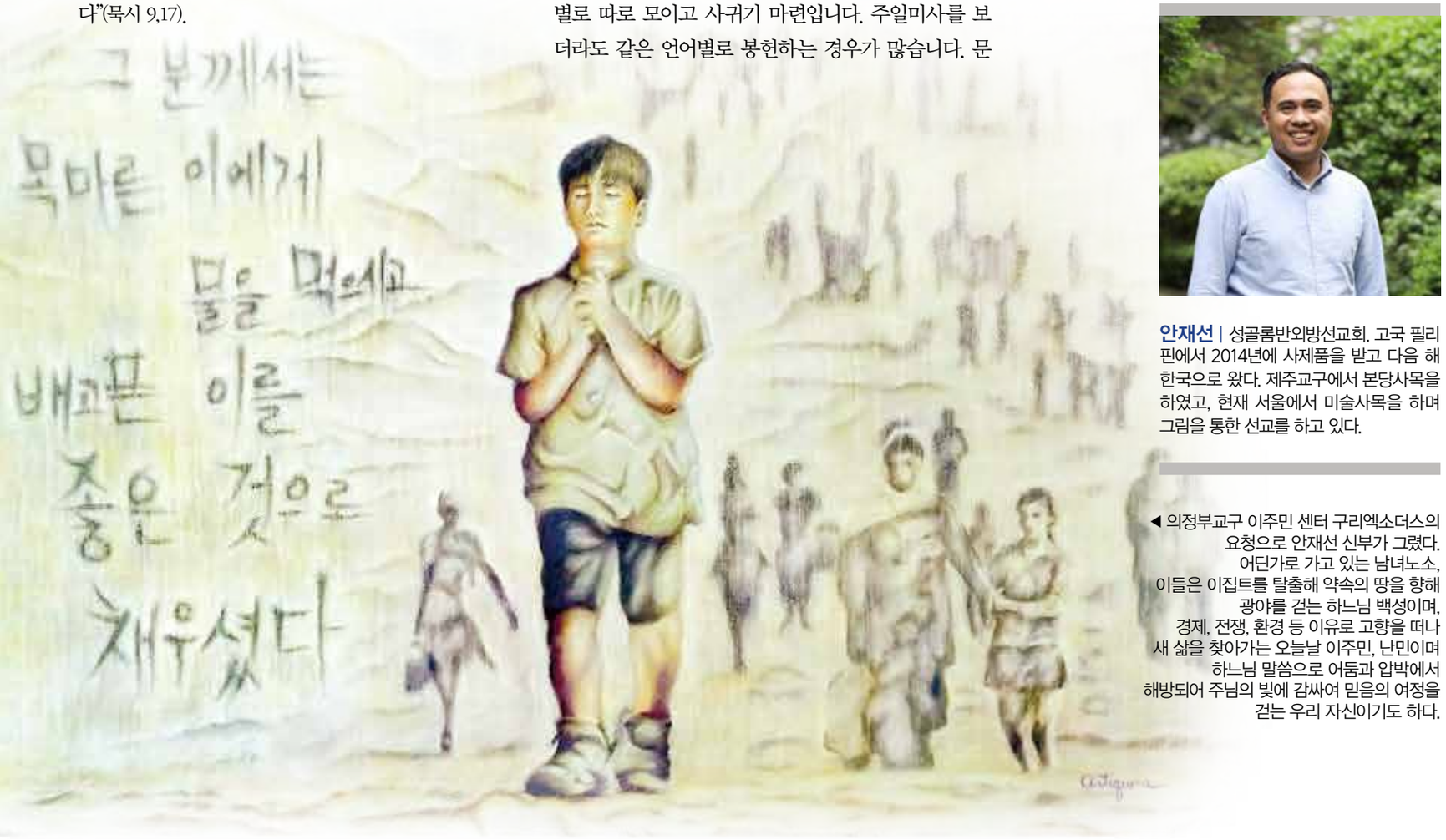
홍보주일 행사에서 골롬반회는 "서울필리핀가톨릭공동체"와 함께 필리핀 전통춤 "티니클링"을 추며 이문화 생활의 풍요로움을 표현해 열띤 호응을 얻었다. (2023년 5월, 서울 명동대성당)

"**이문화(異文化 Intercultural living)**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일상에 이문화 생활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으며, 다른 문화와 만나면서 우리는 문화 지평을 넓혀갑니다.

사회의 이문화 현실이 하느님과 우리 신앙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느님과 인간의 상호 작용은 이문화 그 자체입니다. 이문화는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비전입니다. 하느님과 피조물, 피조물과 피조물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고 긴 겉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어좌 앞에 또 어린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묵시 9,17).

교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느님 비전에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의 이주민 센터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직원들, 봉사자들이 서로 소통하며 함께 일합니다. 골롬반회 한국지부도 더욱더 다양한 이문화 선교회가 되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뿐 아니라 중국어, 케추아어(페루 원주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가 공존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면서 함께 하느님의 선교에 참여합니다. 특히 젊은 골롬반 선교사들은 여러 언어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선교지에 가서 맞닥뜨리는 문화와 관계된 문제에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문화 생활은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수반합니다. 그중 첫째는 언어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언어 문화권별로 따로 모이고 사귀기 마련입니다. 주일미사를 보더라도 같은 언어별로 봉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권마다 내 몸과 타인 몸의 거리를 인식하는 차이 또한 도전 중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를 하나 들자면, 명동대성당에서 하는 주일 영어미사에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참례하는 만큼, "평화의 인사"도 문화권마다 다르게 합니다. 목례만 하기, 악수하기, 친구한테 인사하듯 손 흔들기, 포옹하기 등등 다양하고, 서로 입맞춤하는 평화의 인사를 보고 다른 문화권 신자들이 매우 어색해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한, 건강과 질병 관련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문화 생활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음을 절감합니다. 팬데믹 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있었던 제한과 편견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성당에서 미사를 중단했다가 얼마 후 재개하였지만, 이주민을 위한 미사를 지금까지도 재개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안재선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고국 필리핀에서 2014년에 사제품을 받고 다음 해 한국으로 왔다. 제주교구에서 본당사목을 하였고, 현재 서울에서 미술사목을 하며 그림을 통한 선교를 하고 있다.

◀ 의정부교구 이주민 센터 구리엑소더스의 요청으로 안재선 신부가 그렸다. 어딘가로 가고 있는 남녀노소, 이들은 이집트를 탈출해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를 걷는 하느님 백성이며, 경제, 전쟁, 환경 등 이유로 고향을 떠나 새 삶을 찾아가는 오늘날 이주민, 난민이며 하느님 말씀으로 어둠과 압박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빛에 감싸여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 자신이기도 하다.

누구나 자기 문화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므로 우리는 예외 없이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문화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일 수 없으며, 내 관점만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문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회에 아무리 다양한 문화가 존재해도, 인간적인 방식으로 흘러간다면 따로따로 모이는 것이 더 쉽고 편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필요를 못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이문화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방식을 따르려 할수록 이문화 생활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제시하신 "함께 사는 생활"에 대한 비전은 창세기부터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이야기까지 담겨있듯이 "포용과 평등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님의 비전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들은 사회 변방의 소외된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면서 스스로 "소외"되어 그들과 같아지셨습니다. 이문화 생활은 복음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비전에 근거한 신앙이 하는 일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짓는 일이므로 동시에 선교 활동입니다. 하느님과 하나가 된 백성이 함께 여행하는 시노달리타스는 예수님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시노달리타스가 제시하는 "참여하기"에 모두 다 초대받지만, 사회 변방의 목소리, 난민과 이주민, 장애인, 학대받은 사람들, 노인들, 재소자, 성소수자, 외롭고 무시와 따돌림을 당한 이들은 우선권을 갖습니다.

끝으로 신학생 시절에 들었던 스승 랍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새벽이 언제부터인지 아는가?" 한 제자는 "검정 실과 흰 실을 구별할 수 있을 때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나무의 윤곽이 지평선에 보일 때입니다"라고 답한 제자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여러 답을 다 듣고 나서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다. **이방인들과 서로 눈을 맞추고 형제로서 반가워할 때 비로소 새벽이 된다. 그 전은 아직 밤이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김윤정 로사리아

필자의 대학교 졸업식 날,
엠마우스 그룹홈 천노엘 신부의 축하를 받았을 때

발달장애가 있는 저는 아동시설과 특수학급에서 쭉 지내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설 동생을 따라 기타학원에 가게 되면서 기타를 처음 배웠습니다. 학원에는 비장애 중고등학생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어울려 지내며 기타를 열심히 배웠고 공연도 함께 하였습니다. 학교 졸업 후에는 10여 명으로 구성된 "오름"이라는 기타 연주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연습하다 보니 코드 잡는 손가락도 아프고 새로운 코드를 외우느라 힘들었지만, 동아리 언니 오빠들이 기다려 주고 도와주어서 실력이 점점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잠시 멈추었는데 언젠가 또 함께 모여 연주할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시설 이모(직원)의 권유로 개신교회를 다녔는데 예배에 빠지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삼각동성당(광주대교구)에서 하는 발달장애인 주일학교에 관해 듣게 되었고 저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골롬반회 천노엘 신부님의 제안으로 광주대교구에서 문을 연 "무지개주일학교"였습니다. 처음엔 미사와 교리가 낯설었지만, 성당 생활에 잘 적응해 갔고, 교리 선생님들과 주일학교 친구들과 가족처럼 지내면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학교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3년간 활동하였습니다. 워크숍이나 행사를 같이 준비하고, 무엇인가 결정할 때 제게 물어봐 주어서 무척 좋았습니다. 친구들의 의견을 잘 들어두었다가 회의 때 전달해 주는 중요한 역할은 부회장으로서 저의 일이었습니다. 회의 중에 어려운 교리나 예산에 관한 주제가 나오면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하지 못해 가만히 앉아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회장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들을 때면 뿌듯함으로 행복했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활동하는 기타 연주 동아리에서 공연했을 때
(오른쪽에서 세 번째 연주자가 필자)

엠마우스 그룹홈 가족들

저는 성당 활동을 하면서 얻은 자신감으로 대학이라는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되었고, 2019년에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야간에 합격하였습니다. 선후배, 동기와 강의를 듣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는 카페에 모여 시험공부를 같이 하고, 핑계 삼아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즐겁게 학교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초등학교에 취업해서 청소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등학생들과 만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서로 인사도 하고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즐겁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본당 전례 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저는 미사 때 보편지향기도를 맡아서 하였습니다. 본당 미사는 평소 우리(제가 소속된 광주대교구 발달장애인선교회)가 드리는 미사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고 시간도 길었습니다. 무엇보다 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서 누가 조금 쉽게 설명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기타를 배우거나 대학교에 다닐 때는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우는 속도가 느리더라도 기다려 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물어봐 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 본당에서는 나에게 물어봐 주지 않고, 어려운 말로 하는 미사와 교리에 관해 쉽게 설명해 주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아마도 다른 장애인들도 저와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저는 발달장애인선교회에 다니면서 미사의 기쁨과 쉬운 교리 활동을 통해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제가 되고,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회가 없거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인식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장애인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한다면, 우리 사회와 교회가 훨씬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김윤정 | 엠마우스 그룹홈 가족이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며,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MZ세대 청년이다.

낯선 이를 환영할 때,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릴리베스 사바도(Lilibeth Sabado) 선교사
번역 한레지나

사진 제공: 릴리베스 사바도

이주사목 여정을 떠올리라면 늘 제 첫 선교지인 대만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여성 평신도선교사로 일하면서 환영받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당하거나 차별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모국의 언어와 문화가 주는 안락함을 떠나 타국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게 되었으며,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이민자들의 필요에 응답하라고 모든 이를 초대한다. "자비의 복음의 뿌리에서, 다른 이들을 만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고 받아들이는 것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하느님을 직접 환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하느님 자비의 경험에서 나오는 삶에 대한 희망과 기쁨을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 2016년 세계 이민의 날 담화문 "이민과 난민이라는 도전에 대한 응답인 자비의 복음"

환대란 "낯선 이"를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관대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묵시 3,20). 낯선 사람을 환영하려면 진실함과 관대함이 필요하다. 이는 하느님과 만남이기 때문이다. 교종은 한결같이 촉구한다. "당신이 낯선 이를 환영할 때,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민들은 이주하는 여정에서 많은 시련을 겪는다. 자기 나라를 떠나기 전에 최대한 조달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야 하므로 대부분 사채를 빌리거나 가산을 처분한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희망을 품고 길을 떠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온갖 폭력과 차별에 시달리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이들도 많다.

골롬반회는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쉼터를 운영하며 이주민 난민들을 돕고 있다. 사진은 골롬반회 지원사제로 이곳에서 활동했던 최우주 필립보(서울대교구) 신부가 제공했다.

나는 미국지부로 발령받고서 국경 지역인 미국 엘패소와 멕시코 후아레스에서 골롬반회가 운영하는 쉼터를 방문하였다. 국경에서는 "포도밭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했다. 누구라도 그곳에 발을 디딘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바로 떠오를 것이다. 대피소는 모든 연령대 사람들로 혼잡하고 내가 만난 최연소자는 생후 나흘 된 아기였다. 사람들은 임시 대피소로 지정된 텐트와 버스에서 지냈고, 거리에서 구걸하거나 소지품을 팔기도 하고, 푼돈만 받고라도 자동차 앞유리를 닦겠다고 일감을 찾아 나섰다. 급식소 앞 길게 줄서 있는 사람들, 사방에 설치된 철조망, 무장한 군인들, 거리 위 군용 차량…, '아, 전쟁터가 이럴까!' 하루를 버티기 위해 밥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는 애원이 서려 있었다.

릴리베스 사바도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2003년 대만으로 파견, 이주민 노동자를 위한 가톨릭 희망 센터에서 8년 동안 활동했다. 이후 홍콩과 중국에서 그리고 본국 필리핀에서 소임한 후 2022년, 미국지부로 발령받아 이주민사목(국경 지역)을 시작하였다.

이주민들의 고달픈 여정 한편에는 그들을 도와주는 이들도 있다. 급식 센터는 도시락을 나눠주기만 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100명 단위로 식당에서 편히 식사하도록 봉사자들이 안내한다. 힘이 덜 드는 효율적인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하는 과정 자체가 단지 체력 회복만이 아닌, 곧 존엄의 회복이다.

후아레스의 어느 본당에서 젊은이들과 모임을 했을 때, 나는 선교지에서 터득한 대중교통에서 생존하는 법을 들려주었다. 빈틈없는 만원 버스에 타려면, 일단 머리부터 밀어 넣는다. 머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몸 전체가 들어갈 공간은 충분하다고 보면 된다. 놀랍게도 버스 안 사람들은 머리를 밀어 넣은 내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도와준다. 관대한 마음으로!

"주님, 버스 안 사람들처럼 낯선 이를 맞이 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을 배우게 해주소서. 문밖에서 두드리는 이에게 문을 열어줄 관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새 삶을 찾아가는 이주민들을 지켜 주소서. 그리고 더 많은 일꾼이 당신의 포도밭에서 봉사하도록 격려해 주소서. 아멘."

살아있는 책

민 디오니시오 신부

우리 아버지, 북아일랜드 출신에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어요. 북아일랜드 사람들은 자신이 천주교 신자인지 아니면 개신교 신자인지를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반면 우리 어머니는 서쪽 지방 메요 사람인데, 그곳은 북아일랜드처럼 가톨릭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서인지 어머니는 종교를 편안하게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밤 8시가 되면 우리 가족은 한자리에 모여 묵주신공을 바쳤습니다. 결석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았어요. 핑계도 통하지 않았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라디오나 TV가 없었기 때문에 밤 8시 기도가 별문제 아니었어요. 그런데 1956년 우리 동네에 전기가 들어오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집도 TV와 라디오를 장만했는데, 꼭 밤 8시만 되면 제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방송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아버지께 묵주기도 시간을 바꿀 수 있는지 여쭤보았지만 양보해 주실 리 없었지요. 묵주기도는 변함없이 밤 8시, 전원 참석이었습니다. 우리 친가도 똑같이 8시에 묵주기도를 했습니다. 제 할머니는 펍pub을 운영하셨는데, 술꾼 손님들도 밤 8시가 되면, 할머니와 같이 묵주기도를 바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가끔 싫을 때도 있었지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어린 마음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물려받은 DNA 안에는 기도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DNA의 반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으므로, 저는 꼭 기도를 밤 8시에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도는 매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 많은 부분에서 농담하는 걸 좋아하고 지금도 많이 하지만, 기도에 대해서는 절대로 농담하지 않습니다.

필자의 누나가 그린 고향 마을 풍경

필자의 부모님

우리 아버지는 책을 그렇게 좋아하셨고 돈만 생기면 책을 사는 바람에 어머니 잔소리를 좀 들으셨어요. 아버지 따라 저도 8살 무렵부터 책 벌레를 잡기 시작했어요. 처음 읽은 책은 『전쟁과 평화』였고, 『안나 까레니나』, 『죽음의 집의 기록』도 읽었습니다. 책장에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같은 러시아 작가 외에도 프랑스 작가들 책도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새로 읽을 책이 몇 권씩 방에 있어야 안심이 될 정도로 책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버지는 매일 기도뿐 아니라 성경 읽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집에 조상들의 이름이 적힌 "가정 성경"이 있었는데, 날마다 15분 동안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읽은 적하기는 통하지 않았어요. 어떤 내용을 읽었는지 아버지가 꼭 물어보셨으니까요.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전체를 다섯 번 정도 읽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형제에게 성경은 어렵고 신비한 이야기였지만, 그때 와닿았던 여러 구절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시편 23장 1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두렵거나 걱정될 때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평화로워집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편인데 왜 걱정합니까?

시편은 놀라운 기도입니다. 시편을 쓴 시인은 항상 경건한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날것 그대로 꾸밈없이 기도했어요. 심지어 하느님께 화를 내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가까이 느끼며 살았기에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니까요.

대문호 찰스 디킨스, 알렉상드르 뒤마, 빅토르 위고의 좋은 책을 다 읽어봤는데, 지금 다시 읽을 마음은 없어요. 이미 내용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읽어도 읽어도 또 읽고 싶습니다. 읽을 때마다 전에는 못 봤던 새로운 말씀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살아 계신 분이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민 디오니시오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아일랜드 출신이며 1969년에 사제품을 받고 한국에 왔다. 광주대교구 방림·함평·장흥·쌍촌동·강진·오치동, 서울대교구 상계동에서 본당사목을 하였고, 한국지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 골롬반본부에서 하우스 매니저와 역사실을 맡고 있다.

"아버지가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읽으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천주교의 금서 목록인 "인덱스"에 들어있던 책이더군요. 책에 앙갚음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 아버지가 인덱스인 걸 알고도 읽으셨는지 확인할 길 없지만, 설령 아셨더라도 아버지는 좋은 책을 읽을 줄 아는 분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박상호 라파엘 신부

???

필자는 페루의 쿠스코 지역 안데스 고산지대에서 잉카 원주민 사목을 하고 있다. 미사 후 공소 앞에서 신자들과 함께

페루 안데스산맥 해발 4,000m에 위치한 이 지역은 잉카 유적지인 마추픽추를 보려는 많은 사람이 찾는 곳입니다. 마추픽추에 가기 위해 쿠스코에 도착한 여행객들은 손에 닿을 것만 같은 하늘, 끝이 보이지 않는 산맥, 맑은 공기 등 아름다운 자연에 경탄합니다. 저 역시도 처음 여기 와서 파란 하늘만 바라봐도 무척이나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안데스 고산지대에 살면 살수록 자연에 대한 두려움도 동시에 느낍니다. 무섭게 떨어지는 우박과 벼락에 맞아 죽는 사고가 빈번한 곳입니다. 우기 때 불어오는 강한 바람과 폭우, 반대로 엄청난 건조함을 몰고 오는 건기를 겪고 나면, 자연의 아름다움 뒤에 무서움이 있음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제가 이분들 삶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니다." 고산지대에서 선교사로 살면서 가장 간절하게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중 하나입니다. 문화, 언어, 생김새 등등 모든 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삶에 한 걸음이라도 더 깊이 들어가 공감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싶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느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고 계심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산속 깊은 곳에 사는 가정을 방문하고, 면담을 청하는 분들과 많은 시간 대화를 나눕니다. 마을 잔치에 초대받아 음식을 나누어 먹고 춤도 추며 이웃들을 사귀고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기도해 드리기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할 때면 이곳 원주민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맞닥뜨리게 됩니다. 흙벽돌로 지은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집, 의사를 만나지 못해 작은 병인데도 오랜 시간 앓다가 결국은 하느님 곁으로 가게 되는 현실을….

성당을 찾아오는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면 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들려줍니다. 성적으로 학대받았던 기억,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은 일, 자신들에게 있었던 아픔을 저에게 조금씩 나누어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데스를 잠깐 보고 간 여행객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돌아가지만, 이곳 사람들은 자연에 대하여 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이곳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원주민들이 처한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현실을 바라보기 힘들어 아주 가끔은 하느님께 드린 기도를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안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제가 이분들과 "가족"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기쁜 순간만을 나누는 금방 지나가는 여행객이 아니라, 정말 가슴 속 깊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며 같이 눈물 흘리는 가족이 되어간다는 사실에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조금씩 선교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에 함께하며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원주민들과 조금 더 가까이 함께하기 위해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며 천천히 나아갑니다.

박상호 | 대전교구 소속이며, 2018년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지원사제로서 페루에 파견되었다. 임기 첫 3년은 수도 리마 외곽 지역에서 도시빈민사목을 하였고, 지금은 페루 고산지대 쿠스코의 시콰니교구 퀘웨 본당에서 사목하며, 잉카 원주민들과 더불어 살고 있다.

마을 어르신의 병자성사를 집전하고 있는 필자

원주민 본당 신자들이 꽃으로 꾸민 십자가가 이채롭다.

경애하는 임귀미 선교사님…

류선종 안드레아 신부

필자가 사목하는 터우펀성당 봉사자들과 나들이를 갔을 때 필자 바로 옆이 글의 주인공 故 임귀미 선생이다.

존경받는 선교사가 선종하면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며, 그 업적과 정신을 전승하는 노력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의 빛나는 업적 뒤에는 늘 묵묵히 봉사하는 수많은 무명의 선교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교회장, 교리교사, 레지오 단원, 봉사자 등등 명칭으로만 흐릿하게 우리 기억에 남은 그 선교사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사랑하고 존경해 마지않는 무명의 선교사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임귀미(林貴美린꿰이메이) 첼리나 선생님은 제가 사목하는 터우펀頭份성당 사무장이었습니다. 부임 첫날, 사무실 문을 열고 환한 미소로 맞아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사실 저는 이분을 처음 뵈었을 때 걱정이 앞섰습니다. 70대 후반이었고, 교통사고 직후 보조기에 의지해 겨우 걷고 계셨기에 사무장을 잘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는 기우였습니다. 선생님은 회복되자마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자전거를 타고 씩씩하게 성당에 오셨고, 제가 본당 생활에 적응하도록 알뜰살뜰 보살펴 주셨습니다. 교우들 일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알고 계셔서 가정방문을 준비하는 저에게 그 댁 사정과 기도가 필요한 일을 소상히 알려주시는 등 제가 교우들과 빨리 가까워지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류선종 | 광주대교구 출신이며, 2017년에 사제품을 받고 그해 대만으로 파견되었다. 신주교구 터우펀성당 주임신부로 사목하면서 이주민사목을 겸하고 있다.

◀ 고인이 교리교사로 활동했을 때

▼ 故 임귀미 첼리나 선생(1944~2022)

임 선생님은 1956년에 당시 터우펀성당에서 사목하셨던 메리놀선교회의 마재민 신부님에게 세례받은 뒤로 쭉 성당 봉사를 하셨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교리교사로서 막 신앙의 씨앗이 뿌려진 대만 청년들을 위해 봉사하셨고, 메리놀회 수녀님, 신부님들과 함께 자전거로 산 넘고 물 건너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골롬반회 제리 놀란(한국 이름 나경식, 흑산도 등에서 선교) 신부님과 "성가정 특수교육 장애센터" 설립에 힘쓰셨고 초대 센터장으로 일하며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던 시절, 그분들의 교육과 보살핌에 투신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무급 봉사자로 본당 사무장 일을 하셨습니다.

더 감동적이고도 한편 애처롭고 경외롭기까지 한 점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성당에서 봉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꽃꽂이를 즐겨하셨는데, 설날 미사를 앞두고 제대 꽃꽂이를 준비하시던 중 고혈압성 뇌출혈로 쓰러져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선생님을 발견하고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며 제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듯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작에 일을 못 하시게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보니, 선종하는 그 순간까지 하느님을 찬양하고 교회와 하느님 백성을 위해 겸손한 종으로서 묵묵히 봉사하신 선생님의 전 생애가 큰 가르침으로 다가왔습니다.

임귀미 선생님께서는 65년에 이르는 시간을 하느님과 터우펀 지역 하느님의 자녀들, 특별히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봉사하셨습니다. 선교사들의 충실한 동반자였고, 지역민들의 다정한 이웃이었으며, 교우들에게는 신앙의 증인이자 스승이었습니다. 당신의 발자취는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인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을 참으로 잘 보여줍니다.

사제로 살면서 분에 넘치는 인정과 칭찬,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더 큰 사랑과 관심을 갈구하는 약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선교사들 옆에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많은 동반자, 특별히 사랑하는 임귀미 선생님을 떠올립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모두가 형제자매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함께 걷고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故 임귀미 선생님께서 영원한 천상 안식을 누리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기억하겠습니다.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진을 통해 하느님 만나기

글•사진 알바로 마르티네스(Alvaro Martinez) 신부

저는 오랫동안 사진 작업을 하면서 자연과 나, 사람과 나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느님과 내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연 사진을 찍을 때 인내, 침묵,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연이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도록 저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때와 하느님 뜻에 따라 저에게 찾아옵니다. 이 만남은 서두름 없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창조주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자연에 고마움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찍은 사진을 컴퓨터에서 다시 볼 때 두 번째 묵상이 이루어집니다. 성과도 없고 좋은 만남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어떤 날이, 실은 하느님과 얼마나 완벽한 대화를 나눈 날이었는지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수많은 사진작가가 완벽한 사진을 찍으려고 며칠, 몇 달, 몇 년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지만, 열매를 보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마침내 주님과 깊은 만남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길이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비춰 주실 것입니다.

알바로 마르티네스 | 2003년, 칠레 1호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가 되었다. 칠레에서 후배 선교사를 양성하는 직무와 지부장을 맡았고, 2018년에 본회 리더십팀(참사단)으로 선출, 홍콩에 있는 총본부에서 일하고 있다. 사진과 영상에 관심이 많아 매체를 통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까?
(고급 카메라가 없어도 우리에겐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 자연 안에서 마지막으로 묵상한 때가 언제입니까?

▸ 그때 하느님께서 살아계심을 깊이 느낀 적이 있습니까?
▸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창조의 계절

에이미 에체베리아(Amy Echeverria)
번역 한레지나

한국은 다가올 한가위 준비에 한창이겠지요?

이 수확의 계절을 경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 또한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우리 가족은 미국 남부 시골에 살면서 축구장 절반 크기의 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리고 주말에는 아버지 따라 밭에 가서 씨앗을 뿌리고, 가지를 치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수확하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밭까지 가려면 아버지가 제 이름을 따서 "에이미의 고부랑길"이라고 부른 흙길을 따라 숲속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떠나는 이 작은 여행길은 목적지만큼이나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밭에서 아버지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계절의 징후를 알아차리는 법, 식물이 자랄 자리를 마련하는 고된 일손, 인내심을 가지되 씨앗의 생명 주기를 따라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마음, 그늘에서 쉬는 즐거움, 척박한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꿀 때 느끼는 만족, 한낮 태양 아래 허리를 굽혀 일할 때 찾아오는 피로, 다 자란 딸기를 따는 손가락 사이로 만져지는 달콤함….

그리고 사계절이 시간, 장소, 사람을 기록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톨릭교회는 프란치스코 교종이 선포한 9월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시작해 10월 4일 성 프란치스코 축일에 끝나는 〈창조 시기〉를 타 그리스도교인과 함께 기념하고 있습니다. 〈창조 시기〉는 우리 교회의 비교적 새로운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피조물에 대한 깊은 존중과 돌봄을 위하여 많은 이가 함께 뿌리고 거름을 주며 기른 씨앗에서 맺어진 것입니다. 〈창조 시기〉는 대림절, 사순절 같은 다른 전례 시기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방식으로 기념하며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과 우리의 관계를 발전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성사, 전례, 기도 그리고 공동체 참여를 통해 우리와 자연의 관계가 더 심오하고 조화로워지도록 해 줍니다. 〈창조 시기〉는 개인과 공동체를 생태적 회심으로 이끄는 초대장입니다. 이 초대에 응답함으로써 우리는 자연 세계를 그저 이용하고 관리할 자원으로 보지 않고, 모든 피조물에 담긴 하느님의 신성한 사랑의 표현 방식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찬미받으소서–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

따르는 우리의 소명을 자연 세계와의 관계와 연결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결실이 그들을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 작품을 지키는 이들로서 우리의 소명을 실천하는 것이 성덕 생활의 핵심이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 체험에서 선택적이거나 부차적인 측면이 아닙니다(제217항)."

매일의 삶에서 회심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생태적 소명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게 합니다. 회심은 만남에 의해 촉발됩니다. 회심이란 나 자신, 이웃, 하느님,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의 사랑의 관계를 향한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느리더라도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전환하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생명을 주는 순간을 나눌 때 우리는 피조물과 서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계절의 다양함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은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려면 우리가 잘 보살피고 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루카 13,6-9 참조). 열매를 맺으려면 생명을 불어넣는 일 즉, 어린 싹을 보살피고 키워 내는 힘듦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밭을 가꾸는 것이든 소비를 줄이는 것이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든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피조물이 "서로"라는 관계를 맺도록 노력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어딘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거의 말 없는 대화를 조용히 나누며 주변 세상과 대화를 나눴던 노스캐롤라이나의 밤과 주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밭을 가꾸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씨앗이 심겨 있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그 작은 시골 마을 땅을 일구는 동안 제 안에 심어졌던 씨앗은 계속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에이미 에체베리아 | 미국인이며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로 활동하였다. 현재는 본회 중앙 JPIC 코디네이터로서 정의 평화와 하느님의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대내외적인 일을 펼치고 있으며, 2021년부터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산하 "생태 태스크 포스" 팀의 공동 코디네이터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사제의 삶 50년, 탁승현 베르나르도 신부

『골롬반선교』 편집실

가을빛으로 물든 1973년 5월 어느 날, 베르나르도 프란시스 데그(Bernard Francis Dagge)는 호주 멜본 성 패트릭 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았다. 50년 세월이 흐른 후, 그는 계절도 반대인 먼 나라 한국의 자기 방 책상에서 금경축 미사 강론을 노트에 적고 있었다. 기도하듯 써 내려간 문장과 행간에는 그와 주님의 동행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골롬반회 한국지부의 유일한 호주 사람인 탁 베르나르도(탁승현) 신부는 멜본의 뉴포트에서 5남매 중 넷째이자 외아들로 태어나 신앙 깊은 가정에서 자랐다. 고향 사제들과 항상 가깝게 지냈고, 누나 둘이 수녀였으니 일찌감치 사제를 꿈꾸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고 한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직장을 다닐까, 대학에 갈까? 하는 또래들 고민과는 사뭇 달랐다. "제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까? 하는 고민이었어요. 사랑이 많은 가정에서 자랐고, 주님께서 은총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쉽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대학 공부엔 관심이 없고, 기술을 배우기엔 손재주가 없었어요. 수도회나 교구 사제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거듭하던 중, 호주 지도의 케이프 요크 반도(Cape York Peninsula)가 떠올랐다고 한다. 호주 최북단에 위치한 이곳은 북쪽인 아시아를 향해 화살 모양으로 뻗어 있어서 호주인들에게 미래는 아시아와 함께해야 한다는 이미지를 가진 곳이었다. '그럼 나는, 아시아에서 선교하는 사람이 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수원교구 하남 신장 성당 주임 시절 본당 야유회 날, 어르신 달리기 시합에 참가한 탁 베르나르도 신부. 학창 시절에 운동선수로도 뛰었던 탁 신부는 출발선에서 일부러 넘어져 1등을 양보했다고 한다(1990년 가을).

사제서품식을 마치고 부모님과 5남매가 함께(1973년)

"우리 학교에서 트램(tram 전차)을 타고 똑바로 올라가면 골롬반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은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트램을 탔지요. 도착해서 두리번두리번하다 엉뚱한 문을 열고 들어온 저를 직원이 보고서 성소 담당 신부님을 만나게 해주었어요. 혼자서 갑자기 찾아온 고등학생을 보고 신부님은 적잖이 놀란 얼굴이었어요." 신중한 성격이었던 소년 베르나르도는 조심히 또 한 걸음 내딛기로 한다. 1967년, 골롬반 신학교로 진학하게 된 것이다. 입학하고서도 사제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든 건 아니었다고 한다. 천천히 결정하고 싶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사제가 되기를 바라시기에 저를 이곳으로 이끄셨나요? 제가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1973년, 사제서품식이 장엄하게 봉헌되었다. 성인호칭기도 예식이 시작되자 수품자들이 모두 엎드렸다. 그런데 불현듯 아주 강한 의심이 올라왔다. "'아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사제가 될 수 있을까?' 도저히 못 하겠다는 생각에 도달했을 때였어요. 저 위에서 아주 부드러운 담요가 내려와 저를 살포시 덮어주는 느낌이 들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버니! 두려워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그런 다음 평화가 제 안에 가득해졌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수줍음 많고 자신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때 저는 달라졌습니다."

새 사제 탁 베르나르도는 아시아에서 선교하고 싶다는 소망대로 1974년, 성 베르나르도 축일인 8월 20일에 한국에 왔다. "좋았지요.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학생 때 언어 수학 능력 시험을 보고 98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신학교가 내준 성적표에는 제가 어느 나라로 파견되든지 언어를 잘할 거라고 적혀 있었어요. 실제로 저는 동기들보다 빨리 한국어로 미사를 집전할 수 있었고요. 한국어 공부 1년 만에 파견된 춘천교구 운교동성당에서 보좌 생활도 잘하고 두 번째 언어 연수를 위해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연세어학당 수업 첫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동기들은 벌써 한국말로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98점을 믿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게 후회되었습니다.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만큼 괴로운 나날이 이어졌고, 호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죠. 그런데, 지부장 차 가를로 신부님은 저더러 제주교구 모슬포

하느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

인터뷰·정리 김소영 세실리아

한국 선교 90주년인 올해, 골롬반회와 함께 선교 여정을 걸어온 후원회원들을 특별히 기억하며 보내고 있다. 『골롬반선교』는 30년 넘게 후원회원으로서 선교 활동에 협력해 온 서울후원회 봉사자 **배영숙 우달리카·안귀순 마르가리타·이순재 루시아·최옥희 아가다**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묵묵히 골롬반회 곁에서 세월을 함께한 골롬반 선교의 증인이다.

최옥희 우리 네 명은 고향에서 같은 성당을 다녔고, 경북 김천 성의여고 선후배 사이입니다. 70년대 초에 각자 서울로 올라와서 결혼생활 직장생활 하느라 연락이 끊겼다가 1989년에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성당(서울 도봉동) 계단을 내려오는데 누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돌아보니 배영숙 우달리카 선배였어요.

배영숙 서울에서 같은 본당 신자로 만날 줄은 상상도 못 했지요. 아가다가 먼저 골롬반회 후원회를 하고 있었고, 아가다 동기인 마르가리타, 루시아를 다시 만난 후 넷이 후원회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울에 살면서 모두 골롬반 신부님들이 사목한 본당 신자였다는 것도 섭리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골롬반회를 통해 우리를 다시 이어주셨어요.

최옥희 도봉동성당에 계셨던 故 천요한 신부님이 한국을 떠나시기 전날 저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골롬반회 후원회 좀 잘 해주세요." 하시는데 가슴이 찡했어요. "네, 신부님, 그럴게요." 했지요. 천 신부님은 참 선교사 사제였어요. 무척 검소하셨고 신자를 위해 헌신하셨어요. 신부님 부탁을 어찌 안 들어드릴 수 있겠어요. 당시 왕십리에 있었던 골롬반선교회관에 가서 봉사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90년대 초였어요.

1980년대 말부터 한국지부는 후원회원 가족이 생기기 시작했다. 후원회 모체였던 "꽃님이회"의 활동이 씨앗이 되어 신오복 신부가 후원회 체계를 마련해 배영숙 씨가 회장으로 초대받았다. 이들은 늘 선교사들과 함께했다. 한 식구로서 선교의 동반자로서 하느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이순재 서울 사당동성당에 가서 선교 홍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골롬반회가 설립하고 사목한 본당인데, 거기 신자들이 골롬반회 신부님들의 검소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가 골롬반회에 잘해야 해요" 하면서 후원회에 많이 가입해 주셨어요. 그때 참 뿌듯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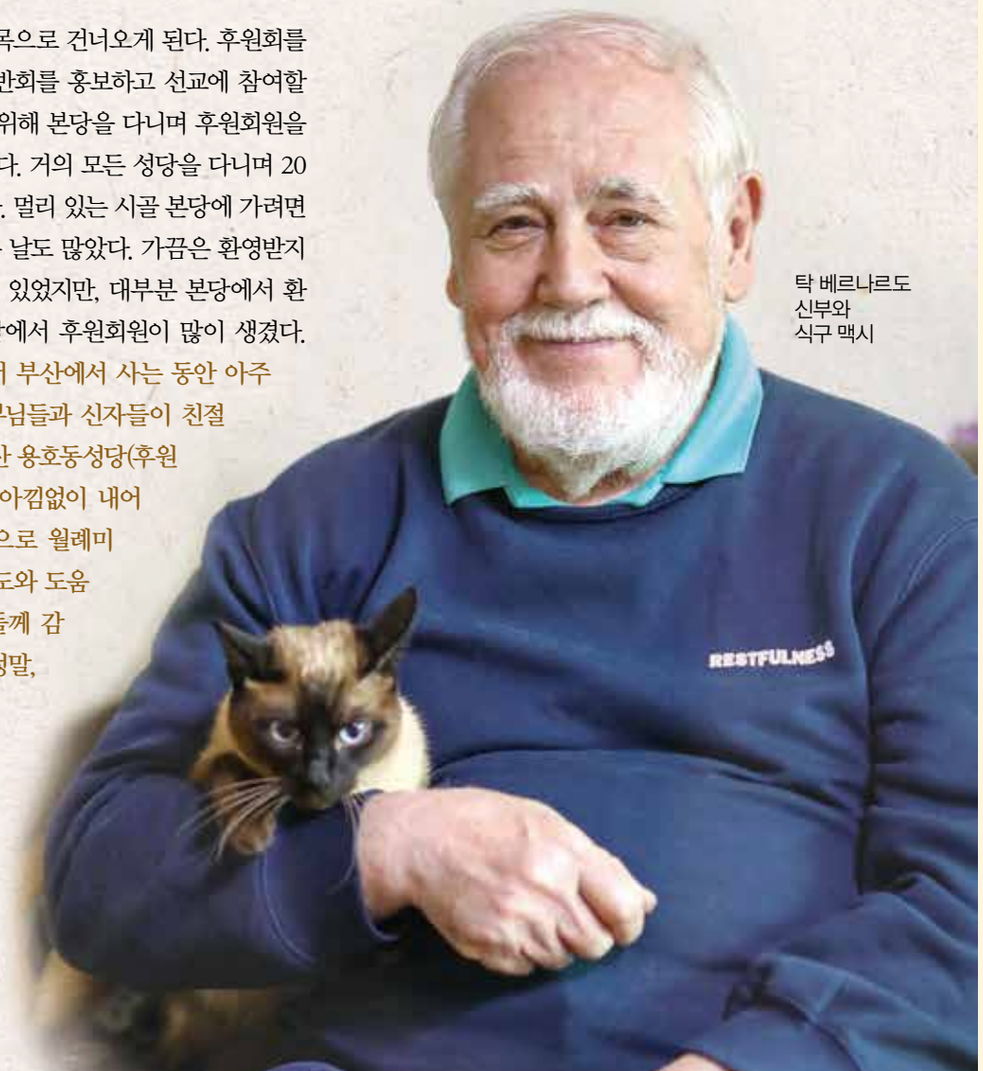
배영숙 후원회 봉사자들은 각 본당에 가서 선교회를 홍보하고, 후원하실 분들을 초대하고, 크고 작은 행사에서 봉사하는 활동을 주로 해요. 신오복 신부님은 부담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도록 해주셔서 편안하게 활동했어요. 많은 후원회원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면서 재미있게 활동했습니다. '아,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구나!'를 깨달은 적도 많았어요. 민 가비노 신부님, 신오복 신부님, 나요한 신부님, 류 데니스 신

성당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한국말은 본당 가서 배우면 된다고 하면서요. 저는 호주에 돌아가기로 했던 제 결정과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으로 저는 50년을 한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제주교구에 이어 춘천교구 홍천 양덕원으로 발령받았다. 이후에는 광주대교구 영광에 갔고, 다음으로 수원교구 하남 신장, 의정부교구 구리와 금곡에서 본당사목을 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탁 신부가 계획하고 결정한 것은 없었다.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선교사는 가는 곳마다 행복하게 지내며 신자들과 사랑을 많이 주고받았다.

1998년, 새로운 사목으로 건너오게 된다. 후원회를 맡게 된 것이다. 골롬반회를 홍보하고 선교에 참여할 후원회원을 초대하기 위해 본당을 다니며 후원회원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었다. 거의 모든 성당을 다니며 20년을 길 위에서 일했다. 멀리 있는 시골 본당에 가려면 여관에서 잠을 청하는 날도 많았다. 가끔은 환영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 본당에서 환영받았고 제주와 경남에서 후원회원이 많이 생겼다. "후원회 담당을 하면서 부산에서 사는 동안 아주 행복했어요. 본당 신부님들과 신자들이 친절하게 대해 주셨고, 부산 용호동성당(후원회 월례미사 장소)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고요. 기쁜 마음으로 월례미사에 오시고, 항상 기도와 도움을 주셨던 후원회원들께 감사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골롬반 가족입니다."

탁 베르나르도 신부가 노트 맨 아래 줄에 쓴 문장을 보여 주었다. "저를 예수님 영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느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꿈이 선교 여정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기도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 전체에서 제가 결정한 건 별로 없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항상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신부가 된 것,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저의 성격, 손기술이 없었던 것, 여러 부족한 면까지도 주님께서 제가 이 길을 가는 데 쓰셨습니다. 그분은 어머니 모태에서 저를 빚기 전에 저를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 주시고 늘 저와 함께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탁 베르나르도 신부와 식구 맥시

부님, 마 미카엘 신부님… 그밖에 후원회를 같이 해주셨던 신부님들 잊을 수 없습니다.

이순재 우리가 봉사를 시작했을 즈음 한국지부가 선교 잡지를 창간했는데, 우리는 각 후원회원 가정에 그 잡지를 보내기 위해서 봉투에 넣는 작업을 했어요. 하루 내내 일일이 풀칠을 하다 보니 손이 풀 범벅이고 멀미가 날 정도였지만, 그때 참 재미있었어요. 작업할 때 트로트 음악도 틀어놓고 수다도 떨면서 했는데, 담당하셨던 故 나요한 신부님이 우리가 웃고 떠드느라 속도가 늦으면 혼내셨어요. 그래도 속정 깊은 분이어서 저희를 챙겨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신부님들이 우리를 많이 환영해 주셨어요.

안귀순 외국인 선교사들 보면서 신앙인으로서 많은 걸 배웠어요. 항상 가난한 사람들 먼저 생각하고, 몸소 아주 가난하게 사셨고요. 그분들한테서 많은 축복과 사랑을 받아서 복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수 있을 때까지 골롬반회에 오려고 애씁니다. 저도 추억이 많은데, 신학원에 가서 밥 같이 해서 나눠 먹던 일이 가장 생각나요. 골롬반회 신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서품받고 외국에서 선교하는 모습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아주 작은 관심을 썼을 뿐이지만 보람 있고 뿌듯합니다.

(왼쪽부터) 안귀순 마르가리타, 배영숙 우달리카, 이순재 루시아, 최옥희 아가다 후원회원.
경북 김천 성의여고 선후배 사이였던 이들의 인연은 골롬반 후원회원으로 이어졌다.
(2023년 여름, 서울 골롬반 본부 정원 성 골롬반 동상 앞)

30여 년 전, 서울 후원회 봉사자들과 함께

후원회원들의 기도는 지구 반대편 변방에 있는 이들에게 닿는다.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하늘 나라에 간 사제들, 우리나라와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그리고 선교지 사람들은 기도 안에서 후원회원들과 연대를 이룬다.

안귀순 이제 나이 들고 집도 멀리 이사를 가서 어느 날은 후원회 월례미사에 가기 싫다가도 그날만 되면 몸이 가 있어요. 빠지는 날이면 '힘들어도 갔다 올 걸' 하고 후회하기도 해요. 미사 전에 성사 드리고 미사 후에 선교사들과 차도 마시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아직 후원회 월례미사에 못 오셨던 분들은 많이들 오셔서 선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최옥희 언젠가 김천 친정에 갔다가 미사를 갔는데, 마침 그날, 외국 신부님이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광주후원회 담당하시는 오수성 미카엘 신부님이셨어요. 멀리까지 와서 골롬반회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골롬반회를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한국에서 오래 선교한 외국 신부님과 같이 본당에 선교 홍보를 나갈 때 보면, 신부님들과 몇 말씀만 나눠보더라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어떻게 사셨는지 느껴지시나 봐요. 그래서 후원회 가입을 많이 해주셨어요. 본당에 홍보하러 가려면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신부님들께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당연히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우리가 본당에 가거든 환영해 주시고, 선교회에 기도와 후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배영숙 저에게 골롬반회는 가족이며, 행복입니다. 골롬반회 선교사들은 제가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후원자이면서 후원을 받는 자였어요. 같이 먹고 나누고 같이 즐겁게 보내면서 골롬반회와 나누었던 소중한 추억은 앞으로를 사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골롬반 선교사들은 청춘을 우리나라에 다 바쳤습니다. 그 헌신이 헛되지 않게 앞으로도 한국인 골롬반 사제들이 많이 배출되어 해외에서 그 삶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이 지면을 빌려서, 모든 골롬반 후원회원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는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을 우리 기도 안에서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골롬반회에서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느님이 부르실 때까지 두 발로 걸어올 수 있을 때까지 골롬반회와 함께하겠습니다.

영성의 해를 마치고

글·그림 김진욱 사도 요한

각 나라 골롬반회 신학생들은 수련기 중에 학업을 잠시 멈추고 필리핀에 모여서 1년 동안 “영성의 해”를 보냅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을 알고, 주님을 더 알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골롬반회를 더 잘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한국, 미얀마에서 온 형제들과 6월까지 영성의 해를 보냈습니다. 이 기간을 마무리하며 했던 30일 피정은 주님께서 제게 끊임없이 선사해 주신 은총을 깨닫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때의 묵상을 짧은 글과 그림으로써 나누겠습니다.

루카 복음 7장 죄 많　은 여자를 용서하시다

나에게 주시는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

나에게 주시는 사랑은 나를 열렬하게 사모하는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적시네

나에게 주시는 사랑은
이기적인 나를 변화시키는 사랑
나를 받아들이게 하는 사랑

나에게 주시는 사랑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보물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만의 보석

나에게 주시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
나를 기쁨으로 나를 희생으로 이끄시네!

나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나는 그분을 열렬히 사랑하네!
영원히 그분만을 사랑하네!

마주하기 어려웠던 지난 경험과 감정을 대면하도록 주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저보다 더 저를 잘 아시는 그분은 강압적이지 않으셨고, 제가 스스로 직면하도록 고요함 안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사랑과 선한 것을 주셨는데도 제가 행한 죄들을 보면서, 제대로 응답해 드리지 못한 것에 아픔을 느끼며 뉘우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루카 복음 7장의 죄 많은 여인처럼 저도 주님께 똑같이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후 저는 고해성사를 통해 마치 세례를 받은 것처럼 새 삶과 새 영을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에 감사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성모님과 요셉 성인의 헌신과 사랑을 묵상하며 부모님께 감사함을 깊게 느꼈고, 두 분께서 선교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나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
나를 긴 시간 동안 품고 교감하시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내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다네
그냥 나 자체로
나를 사랑하시네 (품어 주시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내가 나로서 있게 하는 사랑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위안을 주시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내게 모든 걸 내놓는 사랑
내가 유일하게 한 분에게서만 느낀
소중한 선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내가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사랑
나를 적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세상에서 가장 영원한 사랑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총(보물)
어머니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며 주님께 은총을 청하였습니다. 가난, 멸시, 조롱,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려면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총이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파스카 만찬과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었던 건 사랑 때문이었음을, 이 사랑은 세상에서 약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가장 강한 힘임을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토마스의 만남을 바라보면서 저는 더욱 깊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토마스가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과 걱정을 예수님께 보여드렸고, 주님께서는 용서와 자비의 길인 믿음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요한 복음 20장 예수님과 토마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은총에서 그 무엇도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삶을 주님께 봉헌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김진욱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신학생. 2018년 입회하여 서울 대신학교에서 공부하였고, 현재는 필리핀 마닐라 예수회 신학교에서 유학하고 있다.

문 의

CMS 자동이체 신청, 내용 변경, 주소 변경, 우편물 수신을 원치 않는 분은
해당 지역 후원회로 연락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협조 요청

그동안 자체 양식으로 발급한 영수증을 받으셨던 회원 중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되면, 회원님께서 빠르고 편리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하고,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홈페이지(www.columban.or.kr) **후원회 게시판**
- 서울, 경기, 충청, 강원지역 **서울 후원회** ☎ **02-929-2977** | 팩스: 02-929-1366
  이메일: korseoulfund@columban.or.kr
- 전라, 경상, 제주지역 **광주 후원회** ☎ **062-371-5823** | 팩스: 062-371-5824
  이메일: korkwangjufund@columban.or.kr

『골롬반선교』 잡지는 연 3회 발송(4, 9, 12월 예정)하며 이때 지로로 납부하시는 회원님께 지로용지를 동봉합니다. 용지가 더 필요하신 분은 지역 사무실로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사 봉헌

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회원은 **서울 후원회(02-929-2977)**로 연락해 주세요.

후원회 월례미사

2023년 9월~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장 소	문 의
서울(명동)	1일	6일	3일피정	1일	명동 가톨릭회관	02-929-2977
서울(돈암동)	22일	27일	24일대림특강	29일	돈암동 본부	032-529-9621
인천	12일	10일	14일	12일	부평2동 성당	032-529-9621
원주	13일	11일	8일	13일	원동성당 만남의 방	033-765-3350
안산	8일	13일	10일	8일	원곡동 성당	031-491-2064
하안	22일	27일	24일	22일	하안 성당	02-899-7328
목포	19일	24일	21일	–	대성동 성당	061-276-9218
순천	20일	25일	22일	–	저전동 성당	061-741-8285
전주	21일	26일	23일	–	덕진 성당	063-272-5302
광주	22일	27일	24일	–	광주 골롬반 선교회관	062-371-5823
부산	14일	–	–	14일	용호동 성당	051-625-3382
제주	20일	18일	22일	20일	제주 골롬반 사제관	064-711-2471
	19일	–	21일	–	서귀 복자 성당	064-733-5523
	–	17일	–	19일	30일서귀포 성당	064-762-3444

- **서울:** 피정 11월 3일(금) 오전 10시~ 오후 4시(서울 명동가톨릭회관 1층 / 변동 가능)
- **목포, 순천, 전주, 광주:** 9월은 추석 연휴로 한 주 앞당겨집니다.
  12월 미사는 없습니다.

절취선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및 CMS 출금이체 동의서

온라인 신청

수납 기관명 : 재단법인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전화번호 : 02-929-2977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성명	세례명	교구 : (본당)
주소		
전화	휴대전화	
E-Mail	@	
기부금영수증(실기부자로만 발급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등록 ☐ 우편 요청 ☐ 영수증 거부 발급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록해주세요 (-)		
선교 잡지 (3, 9, 12월 발송) 수신 ☐ 원함 ☐ 거절		
전달 사항		
월정액 원	회비납입방법 ☐ CMS 자동이체(은행 방문 없이 자동이체 가능) 기타 납입 ☐ 온라인 송금 ☐ 지로	

※ CMS 자동이체 신청 (아래 모든 항목 기재 및 정보제공에 동의 필수)

출금 은행명	출금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법정생년월일 (주민번호 앞6자리)	출금일 ☐ 5 ☐ 10 ☐ 15 ☐ 20 ☐ 25 ☐ 3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및 이용 동의일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후원 계좌

후원회원 여러분이 바로 선교의 뿌리입니다.

NH농협	179300-51-002198	우체국	014001-01-001544	KB국민	016737-04-001752
광주	**200-107-332094**	**KEB하나**	**287-910011-22005**	**부산**	**070-01-022777-8**
신한	140-007-742530	우리	1006-501-265347	IBK기업	012-056490-01-019
SC제일	**225-20-397949**	**대구**	**004-10-004189**	**예금주: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주다두 신부 필리핀 발령, 김정혜 평신도선교사 19년 활동 마치고 사회로 복귀

5월 3일, 서울 골롬반 본부에서 지부장 서경희 스테파노 신부 주례로 주다두 신부와 김정혜 선교사를 파견하는 감사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일본, 한국, 영국에서 활동한 김정혜 로베르타 선교사는 그동안 동반해 준 이들의 축복 속에 골롬반회를 떠나 새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학원 부원장을 역임하고 이주민사목과 JPIC 활동을 했던 주다두 제노비아 신부가 고국 필리핀에서 본당사목을 하게 되어 5월 출국하였습니다. 두 선교사의 복된 여정을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2023년 홍보주일 행사 “수도회 큰잔치, 좋기도 좋을시고”에 참여

본회는 5월 21일, 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일대에서 열린 홍보주일 행사에 30여 개 수도회·선교회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나그네”로서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골롬반회 영성을 “하느님의 바람개비”라는 주제에 담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국제 선교회로서 지닌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표현하고자 필리핀 민속춤으로 플래시몹 공연을 펼쳐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낮 4시 미사를 주례하며 명동성당을 찾은 분들을 선교로 초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서울·경기·인천 후원회, 천진암으로 성지순례

매년 5월에 있는 후원회(담당 양창우 요셉 신부) “야외미사”를 올해는 5월 19일 천진암 성지에서 봉헌하였습니다.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다가 4년 만에 재개한 이날 행사에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참가 신청한 120여 명 후원회원과 선교사들은 오래 기다린 만큼 설렌 얼굴로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성지 미사 봉헌, 식사 나눔, 십자가의 길, 순교자 묘지 방문으로 이어진 하루, 날씨도 성모님을 닮아 맑고 깨끗해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페루로 파견된 지원사제 구승모 바오로 신부

1월부터 서울 본부에서 선교 준비를 해왔던 구승모 바오로 신부가 7월, 남미 페루로 떠났습니다. 대구대교구 소속 구승모 신부(사진의 오른쪽에서 세 번째)는 앞으로 6년 동안 골롬반회 지원사제로서 선교사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구 신부를 포함하여 현재 남미 페루에는 4명의 교구 사제(대구·대전·서울·제주)가 도시빈민과 이주민, 산악지역 원주민을 동반하며 사목하고 있습니다. 구승모 신부가 페루 신자들과 함께 기쁨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국을 앞둔 7월 10일, 골롬반선교센터에서 파견미사를 봉헌하였다.

천노엘 신부의 엠마우스, 2023년 스페셜올림픽에 국가대표 보체 선수 파견

왼쪽부터 김사랑 선수, 천노엘 신부, 구민정 선수 | 사진 제공: 엠마우스복지관

발달장애인들의 스포츠 축제 2023년 베를린스페셜올림픽(6월 17일~25일)에 천노엘 신부가 활동하는 엠마우스복지관의 구민정 씨, 김사랑 씨가 보체 경기 국가대표로 출전했습니다. 스페셜올림픽은 모두 승리자라는 뜻에서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170개국 7,000여 명이 22개 종목에서 경기를 치른 이번 대회는 “포용”과 “함께”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전했습니다. 메달을 목에 걸고 귀국한 두 선수는 환영식에서 그동안 응원해 준 천노엘 신부와 엠마우스 가족의 축하를 받았습니다(사진).

갈 바오로(Paul Anthony Carey, 1935.5.27.–2023.5.4.) 신부 선종

강원도에서 사목한 갈 바오로 신부가 5월 4일, 호주에서 선종하였습니다. 향년 87세. 1963년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 한국으로 파견돼 춘천교구 철원·서석, 원주교구 영월에서 본당사목을 하였고, 80년대 초 호주로 가서 선교 홍보, 성소 촉진, 한인 교포 사목 등을 하였습니다. 올해 6월 29일이 서품 60년이 된 날이었는데, 하늘 나라에서 주님과 먼저 간 선교사들과 함께 못다 한 경축의 시간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주님, 갈 바오로 신부에게 영원한 천상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비추소서. 아멘.”

원주교구 영월성당 신자들과 함께

필리핀에서 1년간 "영성의 해"를 보낸 골롬반회 신학생들(미얀마 3명, 한국 3명)과
이들을 지도한 원장 권태문 신부

사제 성소 모임

때 매월 첫째 일요일 9:30~14: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한국지부
(서울 동소문동)

문의 구화 루까노 신부
010-8686-1918
korvocation@columban.or.kr

골롬반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때 매월 둘째 일요일 14:00~17:00

곳 골롬반평신도선교사 센터
(서울 동선동)

문의 노혜인 안나 선교사
010-3817-0567
clmkorea@gmail.com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때 매월 셋째 일요일 14:00~17: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서울 돈암동 수녀원

문의 이애리사 엘리사 수녀
010-5033-9302
columbankor@hanmail.net

지원사제 문의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010-9937-0901 korassocodi@columban.or.kr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 전화 02-926-1217 | 팩스 02-926-0551
www.columban.or.kr